



## 못 믿을 가격비교 사이트 7%는 추가 비용 더 내야

공정거래위, 네이버 쇼핑 등 5개사 810개 상품 점검  
필수 옵션 요금·배송비·품질 등 표시 안한 경우 많아

여행상품 등 가격비교사이트 상품의 가격정보에서 옵션 가격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 요금을 물어야 하는 비율이 7.2%에 달했다. 배송비가 추가되거나 품질로 구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5개 가격비교사이트의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필수옵션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가격이 추가되는 비율이 평균 7.2%에

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제품 구매항목에 필수옵션이 붙어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지만 가격비교 사이트에서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조사대상 810개 상품 가운데 약 58개 가량이 옵션 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비비가 9.3%로 가격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네이버 지식쇼핑과 다나와가 6.2%로 불일치율이 가장 낮았다. 다음 쇼핑하우는 7.5%

### ■ 가격비교사이트 가격불일치 비율

비비	(단위:%)
다음 쇼핑하우	7.5
에누리닷컴	6.8
네이버 지식쇼핑	6.2
다나와	6.2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에누리닷컴은 6.8%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스마트TV(24.4%)와 노트북(22.2%), 데스크탑(20%), 여성용핸드백·기초화장품 세트(11.1%) 순으로 정보 불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두, 냉장고, 홍삼 등은 정보가 100% 일치했다.

특히 여행상품의 경우 대부분 최저가격을 표시함에 따라 객실타입 같은 옵션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배송비와 실제 판매사이트의 배송비 정보가 일치하는 비율은 82.8%에 불과했다.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지만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무료배송이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또 가격비교사이트에 표시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연결되는 상품 일치율은 98%였으며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연결된 상품이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93.1%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품질 등으로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IPTV 소비자 만족 'U+TV G'가 최고

### ■ 인터넷 IPTV 서비스 만족도

	종합만족도	서비스운영	서비스체험	IPTV가입	IPTV설치	IPTV시청	콘텐츠
<b>LG U+</b>	3.61	3.62	3.64	3.31	3.42	3.42	2.85
<b>olleh G</b>	3.52	3.52	3.53	3.29	3.39	3.39	2.87
<b>SK broadband</b>	3.45	3.46	3.46	3.27	3.75	3.22	2.84
평균	3.53	3.53	3.54	3.29	3.77	3.34	2.85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IPTV 서비스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LG유플러스의 'U+TV G'가 가장 높았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스포츠 중계 등을 시청하거나 프로그램을 다시보기로 즐길 수 있는 IPTV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알맞은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종합만족도는 LG유플러스 U+TV G가 3.6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KT의 olleh TV 3.52점, SK브로드밴드 B TV가 3.45점으로 뒤를 이었다. 3개 업체

의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서 3.53점으로 나타났다.

부문의 만족도는 업체의 설비·기술·직원에 대한 신뢰성 등 '서비스 운영'과 IPTV 이용 시 즐거움·만족감 등을 반영한 '서비스 체험', 그 외 'IPTV 가입', 'IPTV 설치', 'IPTV 시청' 등 5개 부문에서 LG유플러스 U+TV G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KT olleh TV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전국 IPTV 이용자는 지난해 1월 631만명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892만명으로 41.4%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가격 내린 휘발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1ℓ 평균 1869.14원 중

세금 969.27원...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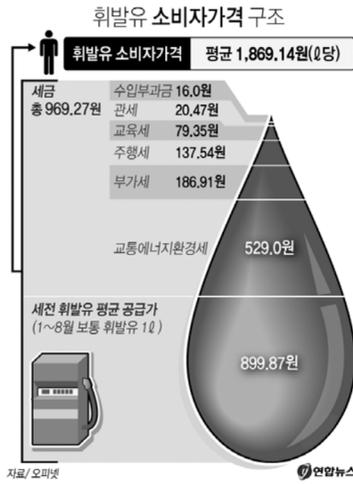
국내 정유업체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발맞춰 휘발유 공급 가격을 내리면서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이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9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1~8월 보통 휘발유 1ℓ에 부과된 세금 총액은 969.27원으로 업계의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 899.87원을 웃돌았다.

세전 가격에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 ▲수입부과금 16.0원 ▲관세 20.47원 ▲부가세 186.91원 등 총 969.27원을 더하면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69.14원으로 된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51.9%다. 기름값에서 배(공급가)보다 배꼽(세금)이 더 커진 것은 세전 휘발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비해 세금은 제품 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고정됐기 때문이다.

1~8월 세전 휘발유 평균 공급가(ℓ당 899.87원)는, 휘발유 가격이 급등해 '기름값이 묘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2011년 평균 952.28원과 비교해 52.41원(5.5%) 떨어졌다. 이는 환율을 반영한 국제 휘발



자료:오피넷

연합뉴스



유 가격 하락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11년 배럴당 117.43달러에서 1~8월 116.59달러로 0.84달러 내려 원화도 환산하면 ℓ당 818.48원에서 764.54원으로 53.94원(6.6%) 하락했다. 동기간 원·달러 환율은 1108.11원에서 1041.64원으로 66.47원(6.0%) 떨어졌다. 이에 비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ℓ당 세금은 2011년 976.98원, 올해 969.27원으로 7.71원(0.8%) 내려 큰 변동이 없

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한 최종 판매가는 2011년 ℓ당 1천929.26원에서 올해 1천869.14원으로 3.1%(60.12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유류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부가 고시로 정하고, 나머지 교육세·주행세 등은 여기 연동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금을 조정할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

이 만만치 않아 섣부른 손을 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제수입(2013조9천65억)의 비중은 6.6%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 휘발유 가격을 내리려도 세금 때문에 하방경직성이 나타나 정작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 해외직구 급성장, 세금 혜택이 한 몫

### 15만원 미만 관세 면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구매(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직구를 통해 반입한 물품 100건 중 96건은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해외직구의 급팽창에는 이런 면세 혜택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9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

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3525만5000건에 33억7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156만5000건으로 총 수입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납부 세액은 총 1097억원이었다.

물품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송을 통한 목록통관은 할 수 없지만, 15만원까지는 일반수입신고로 통해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소비자원 전남 취약계층 사랑나눔 활동

한국소비자원은 7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와 공동으로 '전남지역 취약계층 교육·이동상담'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이동상담에서는 보험전문가가 지역 주민에게 '신용사회와 보험'을 주제로 보험 피해 예방교육을, 법률전문가가 소비생활 관련 법률 상담을 각각 진행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